

| 7일 Market Index |           |       |          |
|-----------------|-----------|-------|----------|
| ↓ 코스피           | 7656.31   | ↓ 코스닥 | 831.23   |
|                 | (-395.02) |       | (-15.84) |
| ↑ 금리            | 3.780     | ↓ 환율  | 1526.05  |
|                 | (+0.004)  |       | (-4.25)  |

# metro 경제



## 삼전, 영업익 109조 '매분기 새역사'

(성과급 총당금 반영)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 매출 171조, 전년비 129% ↑ 영업이익은 1810% 급상승 AIDC 투자확대 지속 여부 향후 메모리 수요 핵심변수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메모리 호황을 발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의 지속 여부가 향후 메모리 수요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사업부와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사업부 간 수익성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과제로 꼽힌다

7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171조원, 영업이익 89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9.31%, 영업이익은 1810.26% 각각 증가했다. 전분기와 비교해서도 매출은 27.74%, 영업이익은 56.21% 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실적은 지난 1분기 기록한 매출 133조8700억원, 영업이익 57조2300억원을 한 분기 만에 뛰어 넘으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인 84조5994억원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이번 2분기 실적에 반도체 사업 성과급 총당금이 약 15조~20조원 규모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영업이익은 100조원을 훌쩍 웃도는 104조~109조원 수준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일회성 비용을 감안할 경우 삼성전자가 분기 기준 영업이익 100조원을 사실상 처음 넘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업부별 세부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전사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견인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용 고부가 메모리 판매가 확대된 데다 범용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메모리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3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코스피가 395.02포인트(4.91%) 내린 7656.31 마감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 4.91% 하락 '롤러피'... 7600대로 '뚝'

삼전닉스, 6%대 동시하락 ETF·외인매도 등 변동성 키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2톱'이 무너지며 코스피에 '검은 화요일'이 덮쳤다. 반도체 투자 과열 논란과 수출 우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쏠림에 따른 변동성 확대, 외국인 반도체 매도,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한꺼번에 겹치며 시장의 변동성을 키워왔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4.91% 내린 7656.31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1.87% 하락한 831.23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는 이제 절반이 지났을 뿐인데, 코스피시장에서는 32번째

사이드카(매수·매도 각각 16회)가 발동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26회)을 넘어선 역대 최대 기록이다. 서킷브레이커도 발동했다. 코스피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가 전일 증가 대비 8%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3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metro

## "공급과잉 시대... 돈의 흐름 바뀌어야"

### 2026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

홍성국 헤안리서치 대표 "수축사회, 기득권 해체 겪어 양극화 과정 '파시즘' 경계"

홍성국 헤안리서치 대표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영역에서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와 소비 역량은 줄어드는데도,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생산은 오히려 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도 리스크의 종류는 다양해졌다." 홍 대표(민주당 전 의원·현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는 7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진행된 '2026 감사 리스크 관리 포럼' 두 번째 모임에서 홍성국 헤안리서치 대표가 특별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최규춘 부장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6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 두 번째 모임에서 '수축사회, 무엇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

社告

###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 AI시대 성공적 노후 위한 자산전략

최근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생 자산관리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00세 플러스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오는 7월 9일(목요일)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 및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AI 시대에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상속, 증여 전략, 부동산, 금융자산, 대체투자 및 미래투자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2)
- ◆ 주 제 :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
- ◆ 일 시 : 7월 9일(목)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1시40분~2시)
-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 의 :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 정부 물가대책, 민생불안 잠재울까

이달 소비자물가 대책 발표 1조 민생자금 방안 제시할 듯  
정부가 치솟는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이달 중 대책을 내놓는다. 이번 물가대책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구 경제정책방향)에 비추어 중장기적으로 전제된다. 어떤 묘수를 꺼내 들지 관심을 끄는데 관건은 교환율 파장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이다.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 등이 민생불안 우려를 다소나마 잠재울 수 있는가의 숙제가 주어졌다.

한계가 있다. 미국 금리가 하락해야 외국인 투자자 등이 달러화를 내다 팔 텐데 연준의 통화정책방향은 그 반대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설까지 파다한 영향에 글로벌 투자자 및 각국의 달러화 보유 각축이 치열한 모습이다. 서울외환시장에서도 달러가 잠시 주춤할 때마다 사모르는, 즉 매수세가 강한 탓에 당국의 개입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소문도 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하순 '민생물가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1조 원 상당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질 경제성장전략에서 세부 추진방안 및 후속 조치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등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될 전망이다. 고등어 등 수입산의 원산지 다변화도 추진하고 들어올 물량도 크게 늘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처럼 석유류 가격 폭등과 국제공급망 불안정에 의한 수입물가 오름세에 맞선 지원책이 예상된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올해 1분기 평균 1400원대 중후반을 넘나들더니 2분기를 지나며 1500원대 거래를 굳혔다. 1600원대 진입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 고위관계자의 구두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 정상화의 길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외환당국은 구두 경고에 더해 실제 시장개입(보유달러 매도) 또는 미세조정을 물밑에서 시도해 왔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원화가 강세를 보여 달러를 사들일 때와는 여건이 다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고금리 기조를 고수하는 상황에서는 개입도 분명

### 메트로 한줄뉴스



▲정통방법 시행 첫날...여 "정통방법, 허위정보 방지" 야 "입찰막법"  
▲국조특위, 중앙선관위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부실 대응 질타 /사진 뉴시스

▲이준석, '무섭노' 아이돌 비판 조국 겨냥 "연예계 인사에 이념적 공격 안돼"  
▲방사청장 "캐나다 잠수함 사업, 나토 상호운용성에서 결정적 차이"

▲첫 '농림위성' 차세대중형위성 4호, 우주발사  
▲장윤기 부친 완전 무죄?...'교사죄' 가능 여부 주목